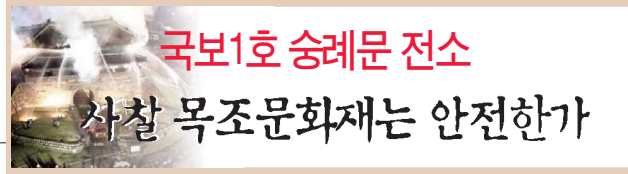


2월 10일 발생한 국보 1호 승례문 화재 참사는 전체 지정문화재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행한 <2004년도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찰 화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5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계는 1984



년 발생한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제163호) 화재와 1997년 회암사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화재,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화재 등으로 수많은 성보가 잿더미로 변하는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예산부족 탓 방재시스템 구축 '미비'

## 사찰 방재대책 현황·문제점

▲불교계 방재대책 실태는=양양 낙산사 화재로 낙산사동종(보물 479호)을 비롯한 성보를 잃은 불교계는 이후 방재대책 수립에 힘써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직관)은 2006년 전국 30여개 주요사찰을 대상으로 방재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해 사찰 방재시스템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함께 화재예방 등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15억과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 대한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찰의 문화재 실태를 파악한 후 권역별 소화전 설치, 수로 및 안전선 확보, 방화수립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해인사의 방수포 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선 사찰에서의 화재예방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을까? 낙산사 화재 이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들은 소화기와 소화전, 화재감지기과 CCTV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찰 내에 소방차를 배치하는 곳도 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폐기처분하는 대신 대흥사와 백련사, 무위사 등 지역 사찰에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재대책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본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계종 교구본사나 대형사찰의 경우 첨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사찰은 소방로 확보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조계사(주지 원화)는 30여 대의 소화기를 비치한 것은 물론 10여 대의 CCTV로 24시간 방범과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주지에는 종무원이, 야간에는 경비인력 4명이 방범활동을 펼친다. 이세용 총무과



관측사 소방차



마곡사 소방시설

## 대형사찰선 첨단시설 구비·대다수는 소화기 비치 수준 화재시 행동지침 이해·산간지역 사찰 소방로 확보시급

장은 "조계사 법당을 24시간 개방함에 따라 신도들이 법당에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화재 시 소방서에서 5분 내 출동이 가능하며 자체 점검과 정기 방재훈련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문을 포함한 법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도 가입해 놓은 상태다.

김천 직지사(주지 상운)는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2005년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 정비했다. 소방사가 직사에서 1시간 거리이므로 자체적인 소방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승례문 화재 이후 2월 14일 방재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화기 20개 정도를 보강할 예정이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자체 예산 1억 원으로 배전반을 마련하는 등 전기시설 관리에 나섰다. 또한 대웅전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자체 화재보다 산불이다. 산불이 사찰로 옮겨 불을 경우를 대비해 1년에 2회씩 소방서, 군부대, 동사무소, 구청 등과 함께 합동 소방훈련 실시하고 있다. 보은 범주사(주지 도광)는 주지스님을 대장으로 하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했다. 국장스님들과 종무원이 포함된 자위소방대 내에는 문화재 반출반을 비롯해 급수조, 소화전조, 소화기조 등 담당분야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더했다.

2월 26일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예산 수덕사(주지 운산)는 현재 50톤 분량의 저수탱크를 250톤으로 늘리고 수압을 높일 수 있는 펌프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역시 자위소방대를 구성해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는 지난해 탕화 등 문화재의 2차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소화기 10여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현재 경내 CCTV는 낙뢰사고로 보수 중이며, 소화전과 수조탱크 역시 노후화돼 보수할 예정이다. 다. 박석암 기획팀장은 "인근 지역이 사적(史蹟)으로 지정돼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근 길상면 소방서에서 5분내 출동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대 기도성지로 연간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강화 보문사는 섬 내의 의용소방대와 함께 수시로 출동훈련을 하고, 마애불 주변의 산불 예방을 위해 소화전 점검을 겸한 화재 예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굴법당을 제외한 경내 전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전각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 뒀다.

▲사찰 방재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조계종이 2006년 발간한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사찰의 방재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일부 사찰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을 갖추고 상황훈련을 실시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상당수의 사찰은 소화전 몇 개와 소화기를 비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찰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소방용수가 부족하고, 소방차가 도착하더라도 소방로 확보가 어려워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 형편이다. 거의 모든 사찰이 설치해 둔 소화전도 통선과 화재진압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화재 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방화수립을 붙여 타기 쉬운 수종으로 조성하거나, 간혹물과 안전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예도 있어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승례문 화재참사에서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이 진압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국보를 전소시킨 예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재 소방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화재 발생 시 행동지침에 대한 이해와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갑갑노출 등 특수소방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여수형 김강진 조동승 기자

## “목조문화재 화재 연속적 발생 우려”

기고 / 전기사량실현연합 임해균 사무총장

'승례문이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뒤통이 아찔하게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제발 불국사, 해인사 그리고 쌍계사 등 아릅답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승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목조건축물은 일단 점화된 후에는 진화가 매우 어려워 화재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조건축물 화재 원인 대부분이 전기화재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전기설비가 무분별하게 시설된 채 방치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심각한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현재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 연구에 온 전기기술인으로서 불국사, 해인사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목조건축물들이 전기화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는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목조건축물의 구조적·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전기설비의 설치는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빈번한 전기 화재 발생, 산불피해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재건축물은 전기배선의 안

전한 은폐시공이 어렵고, 문화재 원형 훼손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물에 비해 특수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별도의 기술적·제도적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설비가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전기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초기 접화 시 가연성이 매우 높은 PVC전선이나 PVC전선관 배선을 주변 소나무에 마치 팔레트처럼 덩어리는 등 전기화재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기누전으로 인한 경우 불국사 화재사고 같은 전기원인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소실되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현재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배선공법을 비롯해 목조건축물에 적합한 전기설비공법이 개발되어 있다. 전기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부처님 전기설비의 교체를 비롯해 목조건축의 특수성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구축이 절실하다.

승례문 화재라는 비극적 사건이 전국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건축물 전기설비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대책 마련 실천의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찰 화재 발생 현황		
발생일	사찰명	피해정도
1984년	화순 쌍봉사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전소
1984년	예천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을 제외한 모든 건물 전소
1986년	김제 금산사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보문 제476호 대적광전 전소
1997년	회암사 선각왕사비	산불로 보물 제387호 선각왕사비 몸돌이 화기(火氣)에 노출
1997년	문경 김홍사	원인불명의 화재로 대웅전, 지장전 제외한 전각과 전적류 소실
2003년	원주 구룡사	전기누전으로 대웅전(강원도유형문화재 제24호) 소실
2005년	양양 낙산사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을 비롯한 전각들이 불에 탔으며, 낙산사 칠층석탑과 사리탑이 화기에 노출
2008년	고창 문수사	한산전과 한산전 내 문화재급 편액 등이 전소

(자료제공=조계종 발간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http://www.mamirobot.co.kr)

₩275,000(소비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락)

#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종교편향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 소재한 조계종 말사 주지와 조계종 승려들의 모임으로 지난 2월 9일 정기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 내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회의를 통해 우리들의 입장을 지면을 통해 밝히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사찰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교계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임을 알리고 재심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종교편향 정책이 근절되고 상처 입은 불자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로스쿨 예비인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인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되었다는 것과,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을 제외하고 오히려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결과를 볼 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치 논리를 개입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2. 우리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 일동은 지역균형이 중요하다면,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형평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1700년 불교전통문화가 국민정서에 깊숙이 배어 있으며, 2천만의

최대 종교 인구를 가진 불교 종립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의 종립대학들이 2~3곳씩 선정된 것을 보면 국가 정책의 종교편향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불교 법조인 양성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3. 불교계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가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 속에서 심사에서 배제되었다면, 소위 일류대를 제외하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던 중위권 대학들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있었을 것이므로 지역적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권역별 대학 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여 예비인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선정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들은 이와 같은 로스쿨 정책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종단 차원의 불교계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안건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정부당국은 졸속한 심사의 종교편향 결정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추진을 재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심사를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인가에서 추가로 선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기 2552(2008)년 2월 12일

##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 용화사(주지 각연), 관음사(주지 현진), 화장사(주지 무진), 화림사(주지 각의), 연꽃피는절(주지 자행), 법인정사(주지 무아), 한국사(주지 지원), 광덕사(주지 일봉), 보문정사(주지 묘정), 평화사(주지 선현), 혜은사(주지 덕산), 안심사(주지 현인), 지장사(주지 상락), 월명사(주지 동찬), 광제선원(주지 원행), 청수사(주지 정남), 광명선원(주지 현운), 성우호국사(주지 동광), 호국총통사(주지 상철), -무순-